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Algoma College	기간	1/15-2/5(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알고마 컬리지가 위치한 수세인트마리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 정도를 가야 도착하는 시골?(그래도 있을 건 다 있음)이다.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순천향대보다 작다. 시설은 나쁘지 않다. 너무 큰 대학을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는데 기대를 안 하고 갔더니 괜찮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뭔가 안락한 느낌이 든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2개의 반으로 나뉘고 수업은 Grammar, Speaking, Listening/Reading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고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는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서 좋았다. 하지만 Grammar 수업은 딱히 유용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Listening/Reading 수업은 주제가 좀 딱딱하다고 느껴져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단기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온 만큼 수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수업 같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Grammar는 '내가 혹시 모르지만 어디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외국인 교수에게 레포트 제출할 때 쓸지도 모르니 알아두자.' Listening/Reading은 '언제 내가 Climate Change에 관심을 가져봤었나? 지구의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들으면 또 나쁘지 않다. 너무 안 좋게만 쓴 거 같지만 Speaking 수업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잘 알지 못했던 캐나다의 원주민과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어찌되었든 어차피 수업시간은 정해져있고 그 시간은 수업시간이니까, 수업방식, 선생님이 싫어도 그냥 뭐라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숙제는 한번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케이트, 스키, 개썰매타기, 알파카농장, 봉사활동 등이 있었다. 스키바지가 필수인데 홈스테이 가족이 거의 다 빌려주시니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춥지 않게만 입고 가면 된다. 추가비용은 없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30도로 떨어지는 날도 있다. 매우 춥다. 코 속도 열고 한 5분 걸으면 얼굴이 깨질 거 같다. 그런 날은 건지 말자. 꼭 걸어야 한다면 목도리로 얼굴을 감아야 살만하다. 엄청 춥지만 좀 적응하면 추위가 익숙해져서 괜찮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안전하다. 혼자 늦은 밤에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엄마가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문화를 알려주려고 노력하셨고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좋았다. 집 분위기도 편안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외식이 비싼 편이고 홈스테이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고 항상 다양하게 해주셔서 집에서 먹는 게 좋았다.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요리해주셔서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었고 점심은 대부분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싸주셨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패스 30일짜리를 준다. 그걸로 버스를 타고 통학했고 나는 집이 먼 편이라서 터미널에서 환승했어야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좀 적응하면 괜찮아진다. 버스도 방향이 많지 않아서 단순하다. 하지만 정류장을 알려주지 않는 버스가 있어서 지도를 켜서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다가 벨을 누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다. 사람이 별로 없다면 기사 아저씨에게 미리 여기서 내린다고 말하면 편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3000
항공료		1,750,000
쇼핑, 외식비	500,000	
합계	500,000	1,783,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 수세인트마리는 눈이 굉장히 많다.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추워서 눈이 녹질 않으니 쌓이기만 한다. 그러니 무조건 부츠를 신어야 한다. 방수되는 부츠가 좋다. 젖으면 발의 감각이 사라진다.
- 미국달러로 바꿔서 캐나다 달러로 바꾸는게 이득이지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니 캐나다 돈으로 바꾸는게 편하다.
- 홈스테이와 사전에 꼭 연락해서 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쇼핑하면 짐이 많아지니 가방을 어느 정도 비우고 오면 좋다.
-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가족들이 아니라면 같이 많이 다니고 웬만하면 밥도 같이 먹는 게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내가 캐나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아이스하키를 보러갔을 때였다. 경기 쉬는 시간에 하키장 중앙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섰었다. 그저 차 광고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차에서 조그만 여자아이 한명이 내렸다. 피겨스케이팅 복장을 입은 여자아이는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했다. 어딘가 불안했고 넘어질 것 같았다. '선수도 아닌데 왜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 그 애의 소원이 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왔다고 했다. 마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이라도 딴 듯이 모든 관중석 방향으로 신나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울컥했다. 장애가 있어도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애가 정말 좋아보였고 관중들의 박수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후에 찾아보니 그 경기 자체도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한다. 이런 경험과 봉사를 다니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 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신체적)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은폐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봐주며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우리나라도 이런 면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캐나다처럼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관광, 그냥 쇼핑, 그냥그냥 놀고먹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아서, 지나고 보니 더 좋았다. 여행으로 왔었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감정을 많이 느꼈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많이 전달하고 싶다.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내가 아는 표현이 한정 되어있어서 한국어만큼 다양하고 정확히 내 감정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떠나면서 여름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다시가고 싶은 곳이다. 꼭 가서 여름의 수세인트마리를 보고 싶고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일요일에 학교 근처 공원에서 썰매 타러 간 날. 정말 추운 날이었다.	봉사활동 때마다 지겹도록 접은 한복 종이접기, 마지막 기념사진
	
알파카 농장에서 먹이주기 체험	스키 스모어가서 구워먹은 마시멜로
	
두 번째 일요일에 보러간 아이스하키 경기, 몸싸움 엄청 한다.	친구 홈스테이 엄마가 초대해준 저녁, 코리안 바비큐, 미트볼이랑 불고기볼